“근현대 선지식 선양, 새 길 열었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 전산화 사업 보고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자 근현대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1864~1940)의 모든 저서와 자료를 망라하는 불사가 5년 만에 회향했다.

(재)조계종대각회(이사장 혜총)는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전산화 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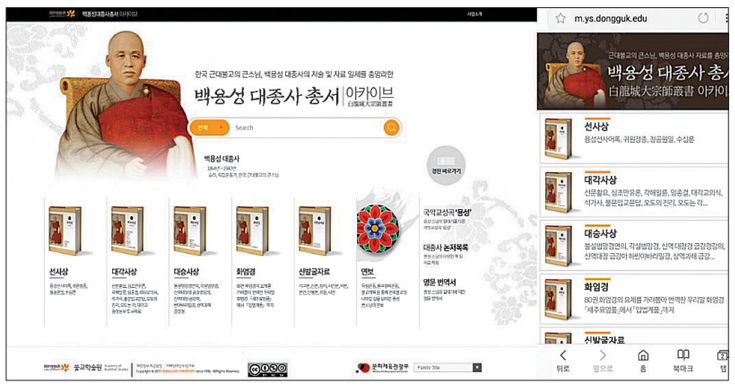
대각회가 진행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전산화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이어졌던 대작 불사다. 조사와 연구·개발 등은 대각사상연구원이 주도하고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협력했다.

지난 5년 동안 대각사상연구원 등은 기존 자료 분석과 새로운 자료 수집, 현대어 번역, 총서 발간 등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백용성 스님의 기고문·서간문 등이 새로 발굴됐다. 5건의 근대문화재 지정이 이뤄진 것도 성과다.

대각회와 대각사상연구원 등은 새로 발굴된 자료와 기존 자료들을 망라해 지난해 총 20권 분량의 〈백용성 대종사 총서〉를 발간했다. 총서에는 백용성 스님의 저서와 신발굴자료, 현대어 해석, 영인본까지 수록됐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4월 5일 열린 보고회에서 총서 아카이브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백용성 총서 아카이브 시스템’ PC버전(사진 왼쪽)과 모바일 버전(사진 오른쪽)의 메인 화면. 백용성 총서를 디지털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대각회·대각사상硏 5년 불사
총서·아카이브·모바일로 회향
백용성 스님 모든 자료 망라
“용성 사상 구현, 노력 할 것”

총서 발간 이후 최종적으로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공개된 것은 〈백용성 대종사 총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이다. PC와 모바일 버전이 모두 구축됐으며, 웹에 접속 않고도 디지털 총서를 이용할 수 있는 E-Book도 개발돼 공개됐다.

이 같은 총서 전산화 사업은 근현대 선지식에 대한 선양과 문헌 집성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불교 단체와 학술 연구기관이 협력해 자료를 수집해 이를 현대어로 번역해 총서를 발간하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아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종단 주요 스님들도 이 같은 성과에 공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종단에서도 선지식의 사상을 현창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대각회의 이번 총서 전산화는 향후 선지식 선양 사업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동국대 총장이자 대각사상연구원장인 보광 스님은 “총서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수많은 워크숍과 시행착오들이 있었다. 이를 통해 오늘의 결실을 맺었다”면서 “이는 인문학과 디지털이 융합한 불교계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도 “백용성 스님은 한국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지식이지만 제대로 된 자료집이 없었다. 이번 총서와 전산화로 스님 사상의 일면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백용성 스님의 사상이 조계종단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비달마시대 불제자 진면목 만나다

주목! 학술서

김영석 역주 〈아비달마부파의 성립과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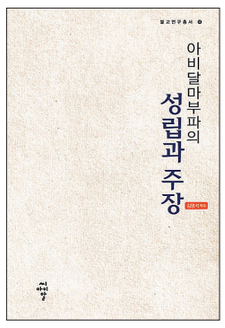
아비달마(abhidharma, 阿毘達磨)는 ‘~에 대해’의 의미를 갖는 ‘abhi’와 ‘법(法)’의 의미를 갖는 ‘dharma’의 복합어로서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연구를 가르키는 대표 용어다.

아비달마 불교는 붓다 입멸 이후 18부파와 20부파로 분열된 성문제자들이 붓다의 말씀을 정리하고 해석해 수많은 문헌을 지었던 사조(思潮)이다. 당시 논사들이 이룬 철학적 사유와 부파 간 치열하게 주고받은 논쟁의 결과물로서 많은 문헌들이 찬술됐는데, 이를 ‘아비달마 논장’이라 한다.

김영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가 역주한 〈아비달마부파의 성립과 주장〉은 불교 역사상 가장 활발한 논쟁이 펼쳐졌던 아비달마불교시대 불제자들의 진면목을 다룬다.

당시의 역동적인 불교의 모습을 오늘날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수많은 부파의 성립배경은 물론 그들이 쌓아놓은 사유의 결과물도 후대 다른 부파의 문헌들에서 조금 발견될 뿐이다. 그나마 와수미뜨라, 바브야, 위니따데바가 각각 저술한 아비달마 해설서 3종이 남아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자가 책의 제목을 ‘아비달마부파의 성립과 주장’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 3종 해설서를 관통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들 해설서는 내용의 광략(廣略)이나 구성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두 아비달마불교시대에 활동했던 여러 부파들이 어떻게 분열돼 성립했고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한 문헌들”이라며 “설일체유부나 남방상좌부를 제외한 다른 부파들의 위상과 주장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대승불교의 사상적 맹아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책을 살펴보면 제1편에서는 기본적 해제와 함께 관련정보를 정리했다. 3종 해설서가 갖는 위상과 가치를 비롯해 저자 정보와 핵심 내용, 제부파들의 연원과 분열 양상 등이 수록됐다.

제2편에서 본격적인 3종 해설서에 대한 교감·역주가 이뤄진다. 3종 해설서는 본래 산스크리트어로 쓰였지만 번역본만 현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본으로 삼아 비판교정본(critical edition)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각 부파의 주장별로 그 의미와 더불어 3종 해설서 간의 관련 정보 등을 각주에 밝혀 놓았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학술 Focus

백제 문화권 문화재 전시 공간 마련된다

5일 국립익산박물관 기공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미륵사지를 비롯해 익산 지역 백제 문화유산들을 전시·보존하는 공간이 마련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4월 5일 전북 익산시 금마면에서 국립익산박물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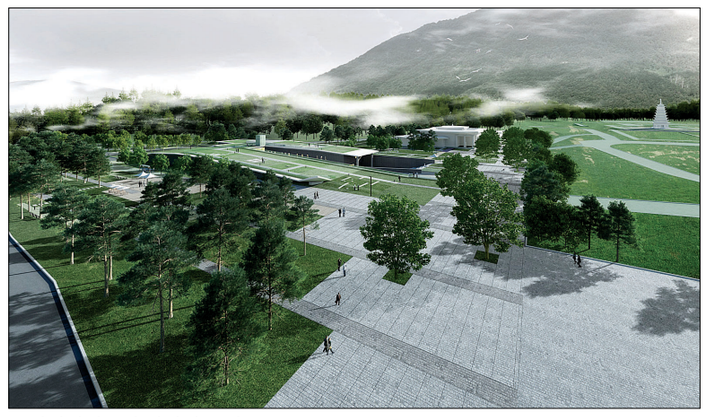
국립익산박물관은 1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6월 준공 및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물관은 연면적 7,500㎡의 지하2층, 지상1층의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실과 수장고, 사무동 외에 뮤지엄샵, 카페 등 공공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367억 원이며, 내년부터는 현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개축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립익산박물관에는 세계문화유산인 백제 미륵사지와 인근 왕궁리 유적에서 출토된 오층석탑 사리장엄구(국보 제123호), 금동향로,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구 등이 전시·보존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익산박물관이 완공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역사지구의 역사와 문화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전시관 조감도.

출가 절벽시대 돌파할 대책은?

한국선학회·월정사·법보신문 13일 학술대회

출가 감소를 넘어 출가 절벽시대를 맞이한 지금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월정사와 한국선학회, 법보신문은 4월 13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가 절벽시대의 한국불교, 돌파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각 지역별 출가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대사회의 출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조준호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원의 ‘인도 출가문화와 불교’ △장미란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의 ‘동아시아의 출가와 한국불교적 특징’ △이원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는 ‘한암·탄허의 출가행과 오대산의 교육전통’ △원주불교대학장 해운스님의 ‘월정사 출가학교의 개요 및 성격’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조계종 개혁종단의 이념정체성과 승가교육의 정향’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조계종의 출가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의 ‘4차 산업시대의 한국불교 출가문제와 미래적 대안’이 발표된다.

주최 측은 “면면히 이어져 온 불교의 전승 과정에는 출가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 의지가 자리 잡고 있다”면서 “출가 철벽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대중의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월정사 출가학교 15주년과 법보신문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열린다.

신성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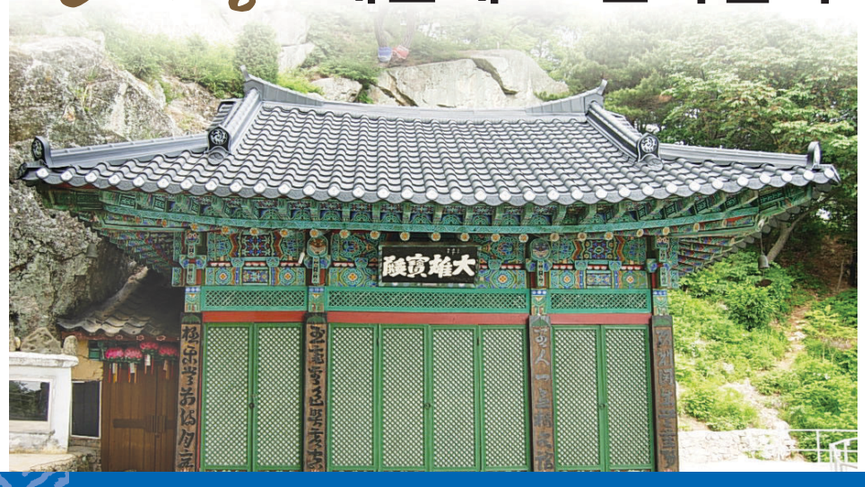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